

'호날두 노쇼' 사기죄라는데 법률적 배상 가능한가

법조칼럼



이명기 변호사 (법률 사무소 강천)

6만 3천명의 관중이 농락당한 '호날두 노쇼' 사태는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날두라는 세계적 축구스타가 나오기로 하고 K리그 울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주최한 더페스타라는 회사는 '호날두 팔이'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경기는 친선을 위한 경기로 '호날두 경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도록 호날두는 벤치만 지키다 나왔다. 호날두가 나오지 않음과 비싼가격에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와 호날두, 소속 유벤투스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법률가의 한사람으로서 40만원짜리 입장료를 구매하고 지방에서 1박 2일로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유벤투스측이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땀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팬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서는 입증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가 맺은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명시되기는 했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의 출장이 부가된 특별 조항이 걸림돌이다. 호날두는 "근육이상을 들어 경기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주최사가 사전에 호날두가 경기에 땀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단정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란 점에서 유벤투스에게 티켓 구매자들에게 대한 기망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호날두 선수를 사기죄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번 친선경기는 어디까지나 '팀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이지 호날두 경기 아니다. 즉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가 이번 경기의 티켓구매자들을 고의로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날두가 이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없는 한 유벤투스 팀의 일원에 불과한 호날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3천여명이 참여한 입장료 반환 청구는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다들 소지는 있으나 주최사에 대한 입장료 반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즉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출장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였고, 호날두의 출장이 결정적이었던 더페스타가 티켓구매자에게 배상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유벤투스나 호날두는 경기 티켓을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다. 즉 애초부터 이들이 이 사건 경기와 관련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티켓구매자들에게 어떤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뜻이다. 그러므로 티켓구매자들이 유벤투스나 호날두를 상대로 입장료 반환이나 기타 계약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더페스타에게 어느 정도의 배상은 다뤄볼만하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다.

재능박덕(才勝薄德)이라는 말이 있다. 재주는 많지만 덕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호날두는 분명 볼 차는 재주는 뛰어났으나 팬을 배려하는 덕은 부족했다. 동양적 사고를 호날두가 알 수는 없었으나 이번 노쇼 사태로 호날두는 돈 이상의 가치를 잃어 버렸다. 유벤투스 구단은 이번 한 번의 이벤트로 약 40억원을 챙기고 호날두도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수많은 팬들을 노쇼로 잃어 버렸으니 작게 얻고 크게 잃었다. 이번 노쇼 사태는 프로 선수들의 능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게 했다. 한국의 팬은 결코 미안한 팬이 아니라는 것 호날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 주고 싶은 충고다.

지방자치, 주민이 묻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답한다

기고



심세희 곡성군 지역혁신팀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항상 뜨겁다. 청원 건수가 매일 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다수 국민들이 청원제도를 이용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나 환경 등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모아 개선을 이끌어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낸다는 점에서 청원제도 운영은 대표적으로 국민참여를 반영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청원(請願)'을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또 청원법에 그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복리증진 등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제도개선 등의 제안과는 유사하지만 사회적 이슈화된 요소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표출하고 활성화

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청원이 그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의 청원을 통한 국민참여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21일 세계 최초로 한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됐다. 이후 2003년 민간단체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그 답답함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소통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광역, 기초단위 자치단체에서도 청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도 '열린 청원제도'를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7월부터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군 역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축사, 대양광, 산림개발, 환경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립해 지역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법(法)대로 절차대로 처리했으니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원론적인 것대로만 답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정책을 결정하고 실현해가는 일은 행정기관의 영역이다. 하지만 주민 다수의 의사에 반한 행정처리와 정책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행정과 정책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주민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중심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이 함께 의견을 공

유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해 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감과 공유의 감성소통 행정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우리 군은 청원제도를 통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공론의 장을 거쳐 성숙한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 등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원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손보고 있는 중이다. 청원 홈페이지 또는 수기로도 청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 군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청원이 들어오면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곳에 청원을 등록하고, 20일 이내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종 청원으로 성립시킨다는 생각이다. 청원으로 성립된 안전에 대해서는 의견교환, 연구 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답변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에도 반영하게 된다.

운영이 안정되면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청원뿐 아니라 공공정책수립,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그밖에 군정 전반의 쟁점사안에 대해 공론화함으로써 최상의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수의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은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를 실현케 하는 원동력이다. 청원제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참된 속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사설

100년만의 서훈에도 후손·유족없는 애국지사들

광주의 3·1만세운동은 부동교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애국지사들에 의해 주도됐다. 당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지사들에게 정부가 100년만에 훈장을 추서하면서 독립운동사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광주지방보훈청은 이 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19명의 광주·전남 애국지사를 정부 포상자로 선정해 훈장을 수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서훈 대상자 중 김정수(광주 좌동·1977년 작고)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 김판철(광주 효천 양림·사망일 미상) 선생은 건국포장, 양만석(함평 신광면), 황오봉(안도읍) 선생 등은 대통령 표창에 서훈됐다.

김정수 선생은 광주농업학교 재학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돼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김판철 선생은 광주 남문과 동문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양만석, 황오봉 선생도 각각 자신의 고향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광주·전남지역의 애국지사로 정부 포상을 받는 인사들의 숫자는 지역별

독립운동 포상자 수만을 놓고 보면 전국 최다 규모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서훈은 경남 하동의 재야사학자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이 2009년부터 국가기록원을 통해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발굴, 국가보훈처에 꾸준히 서훈 신청을 해 온 결과라고 한다. 정 소장이 그동안 각종 기록들을 통해 밝혀낸 광주 3·1만세운동 독립유공자는 총 39명에 달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애국지사들의 유족이나 후손들이 거의 없어 직접 수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광복절에 포상을 수여받는 유족은 이병환 선생의 유족뿐이라는 것이다. 김정수, 김판철, 양만석 선생 등의 경우 유족을 찾지 못해 국가보훈처가 보관해 항후 방계 등의 유족이 나타나면 전수하기로 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이 유명을 달리 한데다 유족도 없어 훈장 수여를 못할 상황이라 안타까운 일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주리게 된다'는 말은 이에서 유래한 듯 하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유족찾기에 나서서 등 그들의 공로를 기려야 한다.

국가하천된 광주천, 진정한 생태천을 기대한다

광주 도심을 가로 지르는 광주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다. 광주시가 지난 5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물이다.

광주천은 동구 학동 중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km 구간에 이른다.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면모를 일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천의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홍수 예방이나 수질 개선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선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매일 1~2급수 10만9천을 공급해야 하는 관계로 지적됐던 수량 문제도 충분히 트일 전망이다. 광주시 재정이 열악해 광주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대표적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150만 인구가 거주하는 국토 서남부의 대도시다. 1천미터가 훨씬 넘는 무등산이 지척에 있는데다 도심에 가로지르는 자연 친화적 광주천을 천혜 자산으로 자랑해 왔다.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복받은 도시라 할만 하다.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

는 자연 조건을 갖췄지만 무등산 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주천은 존재감이 낮았다. 오랫동안 생태적 가치를 외면당한 채 버려진 하천으로 취급 받아 왔다.

그런 광주천은 지난 1996년부터 꾸준한 가꾸기 사업으로 시민 친화적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던 터다. 광주시가 광주천을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시민 참여형 광주천 만들기' 운동을 벌여오는데 이어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더욱 효율적인 관리기틀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 진정한 생태 하천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환경정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하천 승격을 계기로 광주천이 '광주의 세느강'쯤으로 활짝바람 쐬었다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 만큼 수량 풍부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듯 해서다. 광주천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호응에 바탕해 명품 하천으로 변화를 추구했으면 한다. 문화 도시 광주에 어울리는 생태천을 기대해 본다. 도심 오염원 차단에도 주력한다면 하류까지 1급수가 넘쳐 흐르는 생태천 복원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다.

아베 고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시즌 12승을 달성했다. 12일 애리조나전에서 선발로 나와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승리 보다는 평균자책점이 더 눈길을 끈다. 이날 현재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1.45다. 메이저리그 역대급 기록이라며 각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류현진을 필두로 클레이튼 커쇼, 워커 블러 등의 막강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최고 인기 구단이다.

다저스에 버금가는 인기 구단이 아메리칸 리그의 뉴욕 양키스다. 양키스는 13일 현재 동부지구 1위를 달리며 통산 2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에 나섰다.

양키스의 '양키(Yankee)'는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을 가리킨다. 양키라는 뜻은 여러 가지지만 어원은 확실치 않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엄격하고 검소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노예제를 반대했던 북부 지역민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

20세기 이후에는 뉴욕 양키스와 양키스의 팬을 부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남미에서 양키는 반미 감정을 담은 욕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그랬다.

5공화국 시절인 80년대 대학생들은 미국의 군사 독재정권 비호 등의 이유로 미국을 배척했다. 이 때 학생들이 외친 구호가 '양키(Yankee) 고(Go) 홈(home)'이다.

양키 고희를 외치며 학생들은 미국 배척 운동을 폄소 실천했다. 양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양주와 플라, 커피를 마시지 않는 형태의 저항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대학교 총학생회 휴지통을 뒤져 양담배 궤초가 몇 개 나왔는지 보도하곤 했다. 광주권 대학에서 나온 양담배 궤초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학생회가 반성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다.

일본 총리 아베의 탐욕과 일부 우익들의 도발로 시작된 경제보복이 한 달이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노(No) 재팬(Japan) 운동에 앞장섰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거센 불길로 번지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아베(Abe) 고(Go) 홈(Home)'이다.

양생 문화체육부장 gingulove@srb.co.kr



약수터

또한 평상시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다면 119신고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화를 끊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있다.

매년 여름 피서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내 가족이나 동료, 이웃 등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평소 심폐소생술을 숙지하도록 하자. 한선근(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근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체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치부 (062)606-7730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22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182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재보 062-606-7772·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